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

이상숙(한양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 |
| 2. 한국어 교재 분석 | 3.1 관형사형 어미 설정    |
| 2.1 교재 분석    | 3.2 교육 방안         |
| 2.2 교재의 문제점  | 4. 결론             |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의 일차적인 원인을 한국어 교재로 보고 현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제시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으)ㄴ’은 과거형 관형사형 어미로 ‘-는’은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로, ‘-(으)ㄹ’은 미래형 관형사형 어미로, ‘-던’은 과거회상 표현의 관형사형 어미로 대표화하여 한국어 교재에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뿐만 아니라 품사, 양태나 서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제 개념만 가르치기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sup>1)</sup> 이은기(2005)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형절 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관형절 시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은 관형형 어미의 시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대 시제를 적용해야 하거나 숙어처럼 암기해서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절대 시제나 문장 속 시간 부사에 의존하여 시제를 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관형절 시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중급 단계에서는 과거 관형형 어미 ‘-던/었던’과 부정(不定)시제 ‘-는/-(으)르’를 어려워하였다. 고급 단계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관형절 시제에 대한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류율이 높지 않았지만 부정 시제에 관한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다. 따라서 부정 시제에 대한 표현은 모든 단계의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경(2006)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작문을 가지고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환경을 유형화하여 사용 및 오류를 분석하였다. 오류를 누락오류, 환언오류, 형태오류, 대치오류, 첨가오류, 기타오류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치오류가 전체 오류 유형의 3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치오류의 대부분은 관형절의 상대시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형절을 모문의 시제와 일치시킨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비해 ‘-(으)르’에서의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으)르’를 ‘-(으)르 리가 있다/없다’처럼 하나의 통합체로 가르친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상대시제와 부정시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

1) 최우영(1997)에서는 언어내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87.1%로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인 12.8%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어내적 전이에 의한 오류 및 빈도수 조사의 문법 오류 범주에서 연결 어미 다음으로 관형형 어미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이해 부족의 일차적인 원인을 한국어 교재로 보고 먼저 현재 출판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관형사형 어미를 살펴보고 현 교재의 문제점을 찾아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관형사형 어미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재 분석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 제시에 앞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 교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현 교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1.1 교재 분석

서울 소재의 주요 7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 및 제시 순서 그리고 제시 방법을 살펴보았다.

[표 1] 교재별 관형사형 어미

경 희 대	체계	3체계
	제시 순서	동사 + -는 → -(으)ㄴ, -(으)ㄹ → -던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ㄹ ·초급2 중반에 제시함 ·문법 설명 없이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의 의미로 제시함 2) -던 ·중급1 중반에 제시함 ·교재에는 설명이 없었고 부록에 3가지 의미로 설명함 (과거 회상, 과거의 지속, 과거의 반복) · '-던'을 '-더'와 '-(으)ㄴ'의 결합으로 봄 · '-던'을 '-(으)ㄴ'과 '-았던/-었던'과 비교해서 설명함

고 려 대	체계	4체계
	제시 순서	동사 + -는 → -(으)ㄴ, -(으)ㄴ, -던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ㄴ ·초급1 후반에 제시함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의 의미로 설명함 2) -던 ·초급1에 제시함 ·관형사형 어미 과거를 제시할 때 형용사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던/-었던’을 제시함 3) -던 ·초급2 중반에 제시함 · ‘-던’을 과거 회상 형태소 ‘-더’와 ‘-(으)ㄴ’의 결합으로 설명함
서 울 대	체계	4체계
	제시 순서	동사 + -는 → 동사, 형용사 + -(으)ㄴ → 동사 + -(으)ㄴ → -던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ㄴ ·초급1 후반에 제시함 ·문법 설명 없이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의 의미로 제시함 2) -던 ·중급1 후반에 제시함 ·문법 설명 없음 · ‘-던’ 과 ‘-았던/-었던’을 따로 제시함
연 세 대	체계	3체계
	제시 순서	-(으)ㄴ, -는, -(으)ㄴ → -던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ㄴ ·초급1 중반에 제시함 ·한 과에서 모두 제시함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 상, 양태의 의미로 설명함 2) -던 ·초급2 후반에 제시함 · ‘-던’을 회상의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으로 설명함
이	체계	4체계

화 여 대	제시 순서	형용사 + -(으)ㄴ → -(으)ㄴ, -는, -(으)르 → -던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르 ·초급2 중반에 제시함 ·문법 설명 없이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의 의미로 제시함 2) -던 ·초급2 후반에 제시함 ·교재에는 문법 설명이 없었고 워크북에 과거 회상으로 설명함
한 국 외 대	체계	4체계
	제시 순서	형용사 + -(으)ㄴ → 동사 + -는 → 동사 + -(으)ㄴ → -(으)르 → -던
한 양 대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르 ·초급 후반에 제시함 ·영어로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접미사로 설명함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제시함 2) -던 ·중급 전반에 제시함 ·교재에 문법 설명이 없음
	제시 순서	형용사 + -(으)ㄴ → 동사 + -(으)ㄴ, -는, -(으)르 → -던
한 양 대	제시 방법	1) -(으)ㄴ, -는, -(으)르 ·초급1 후반부에 제시함 ·영어로 간단하게 명사를 수식한다고 설명함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의 의미로 제시함 2) -던 ·중급1 후반에 제시함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완료된 행동을 말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함

경희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3원적 체계 ‘-(으)ㄴ, -는, -(으)르’로 보고 관형사형 어미를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제시하였다. ‘-던’은 중급에 제시하였는데 교재에는 문법 설명이 없고 부록에 3가지 의미(과거 회상, 과거의 지

속, 과거의 반복)로 설명하였다. 특징적으로 ‘-던’을 관형사형 어미로 보지 않고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으로 보았다. 고려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 ‘-(으)ㄴ, -는, -(으)르, -던’으로 보고 현재 관형사형 어미를 먼저 제시하고 과거와 미래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형용사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던’을 한 과에 제시하였다. 초급2 중반에 제시된 ‘-던’은 과거 회상 형태소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로 보고 현재, 과거, 미래, ‘-던’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별도의 문법 설명 없이 예문을 통해서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연세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3원적 체계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과에서 다루면서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뿐만 아니라 상, 양태의 의미까지도 설명하였다. ‘-던’은 ‘-더’와 ‘-(으)ㄴ’의 결합으로 교재에 설명하였다. 이화여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로 보고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를 먼저 제시하고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던’ 순으로 제시하였다. 역시 교재에는 별도의 문법 설명이 없었고 예문을 통해서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외대는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로 보고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 동사 현재, 과거, 미래, ‘-던’순으로 제시하였다. 한양대도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로 보고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를 먼저 제시하고 동사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과에서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던’을 제시하였다.

위 대학 중에서 경희대와 연세대만 관형사형 어미를 3원적 체계로 보고 ‘-던’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 형태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개념만을 제시한 반면 연세대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 상, 양태의 의미도 함께 제시하였다.

## 2.2 교재의 문제점

앞 절에서 분석한 교재들에서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를 4원적 체계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초급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모든 교재에서 ‘-던’을 제외한 관형사형 어미를 초급에 제시한 이유는 문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대부분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었고 교재에 제시된 관형사형 어미 연습도 아래 예문(1)처럼 시제 차이만을 인식해서 대답하는 절대시제에 대한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 (1) ㄱ. 가 : 방학에 고향에 갈 사람은 누구예요?  
 나 : 고향에 갈 사람은 제니 씨예요. (한양대 초급1)  
 ㄴ. 가 :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나 : 작년 여름에 바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양대 초급1)

그러나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이나 읽기 지문 등 한국어 교재 곳곳에는 학습하지 않은 다양한 관형절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2) ㄱ. 자가용을 타는 사람도 많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II)  
 ㄴ. 미국 친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서울대 한국어2)  
 ㄷ.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세대 한국어2)  
 ㄹ. 네가 졸업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서울대 한국어4)  
 ㅁ. 새 것만 좋아하고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서울대 한국어3)

(2)의 예는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이나 읽기 지문에 있는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이다. (2ㄱ, ㄴ)은 관형절에 특정 시제로 해석할 수 없는 부정시제가 사용된 예이고 (2ㄷ, ㄹ)은 관형절이 모문의 시제와 다른 상대시제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리고 (2ㄱ)은 머리명사 제약이 있는 관형절이다. 이처럼 한국어 교재에는 교재 전반에 걸쳐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해석하는 관형절과 특정 시제로 볼 수 없는 부정시제로 해석해야 하는 관형절, 그리고 특정 관형사형 어미만 결합되는 머리명사 제약을 가진 관형절 등 다양한 관형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가 학습 목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시제 차이로만 인식하는 절대시제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형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앞서 분석한 교재의 결과를 기존 오류 연구의<sup>2)</sup> 결과와 관련지어 현 교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

문제점	오류의 예
1) 상대시제 교육 부족	예) 거실에 앉아서 라디오에서 <u>흘러나온(흘러나오는)</u>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소설을 읽었다.
2) 부정시제 교육 부족	예) 밤에 술을 조금도 <u>못한(못하는)</u> 나와 시아버지가 술을 마셨다.
3) 머리명사 교육 부족	예) 제복은 더 이상 <u>말한(말할)</u>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성을 나타낸다.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대시제 교육의 부족이다. 관형절은 절대시제로 해석되는 경우와

2)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연구된 이은기(2005)와 이진경(2006)의 오류 연구 결과를 자료로 삼았다.



상대시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현재, 미래로 배웠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때 상대시제로 해석하지 못하고 절대시제로 해석하여 모문의 시제와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위 [표 2]에서 나타난 1)의 예처럼 상대시제로 해석해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야할 자리에 절대시제로 해석하여 ‘-(으)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정시제 교육의 부족이다. 관형절 중에서 특정 시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부정(不定)시제라고 하는데 학습자들은 부정시제로서의 ‘-는’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절대시제로 해석하여 모문의 시제와 일치시켰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교육에서 부정시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상태나 행동에 사용하는 부정시제의 ‘-는’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교재 곳곳에서 부정시제로서의 ‘-는’이 사용된 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리명사 교육의 부족이다. 동격관형절의 머리명사는 대체로 관형사절 어미에 제약을 받는데 머리명사 제약을 인지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모문의 시제와 일치시키거나 머리명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위 [표 2]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써야할 자리에 머리명사 제약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아서 ‘-(으)ㄴ’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머리명사 제약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으)ㄴ’과 ‘-았을’, ‘-는 것’과 ‘-(으)ㄴ 것’ 등의 의미 차이에 대한 교육, 형용사 사용에 대한 교육 등도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위 세 가지로 보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3.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

앞서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형사형 어미 교육을 위한 세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1 관형사형 어미 설정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기존 연구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형사형 어미 설정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익섭·임흥빈(1983), 장경희(1985), 이효상(1995)은 관형사형 어미를 2원적 체계 ‘-(으)ㄴ, -(으)ㄹ’로 보았다.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가 아닌 상, 양태, 서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으)ㄴ’은 완료, 확정, 실현, 현실에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 ‘-(으)ㄹ’은 미완료, 미확정, 미실현, 현실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는’은 ‘-느-’와 ‘-(으)ㄴ’의 결합으로 ‘-던’은 ‘-더-’와 ‘-(으)ㄴ’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이런 체계의 장점은 ‘-느-’를 진행, 과정의 상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주절과 관형절에서의 ‘-느-’와 ‘-더-’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형용사에 ‘-는’을 쓰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최현배(1937), 양동휘(1978), 권재일(1985), 서정수(1996), 허웅(1999)은 관형사형 어미를 3원적 체계 ‘-(으)ㄴ, -는, -(으)ㄹ’로 보았는데 이 역시 관형사형 어미를 상, 서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으)ㄴ’은 완료, 완결, 확정, 과거, ‘-는’은 미완, 진행, 현실, 현재, ‘-(으)ㄹ’은 예정, 추정,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체계는 일관되게 관형사형 어미를 설명할 수 있지만 동사의 경우 현재나 진행상을 나타내는 ‘-는’이 형용사나 계사의 경우 ‘-(으)ㄴ’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홍식(1990)은 관형사형 어미를 4체계 ‘-(으)ㄴ, -는, -(으)ㄹ,

-던'으로 보았다. '-(으)ㄴ, -는, -(으)ㄹ'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체계는 관형사형 어미를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으)ㄴ, -는, -(으)ㄹ, -던'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회상의 관형사형 어미로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 초급 후반에서 결합 형태를 중심으로 '-(으)ㄴ, -는, -(으)ㄹ'을 먼저 가르치고 중급에서 '-던'을 가르친다.

국어 교육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상'이나 '서법'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시제'로 보는 입장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시제'의 개념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대표화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sup>3)</sup> 허웅(1983)에서는 '-는'이 관형형으로서 '현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문법 현상을 잘못 해석 혹은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단순화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상'과 '서법'의 개념만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가르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제를 중심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상'이나 '서법'의 의미를 추가하여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어떤 체계로 보는지, 또는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관형절의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를 기존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 따라 '-(으)ㄴ, -는, -(으)ㄹ, -던' 네 가지로 보기로 하겠다.

3) 김호정(2006)에서 재인용. Sohn(1995:134~135)에 따르면 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완료상을 포함하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미래 혹은 주절의 과거 시제와 함께 과거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미래 시제라는 것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2 교육 방안

#### 1) 상대시제

관형절은 절대시제로 해석되기도 하고 상대시제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절대시제는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제를 해석하는 것이고 상대시제는 발화시가 아닌 모문 상황시(모문 사건이 발생한 시점)를 기준으로 시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기심(1972)에서처럼 관형절이 절대시제로 해석되느냐, 상대시제로 해석되느냐는 일정한 규칙이 없고 둘 이상의 기준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절의 시제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도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현재, 미래로만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관형절을 상대시제로 해석해야 할 때도 상대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대시제에 의존하여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다.

사실 학습자들에게 관형절의 시제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해석하는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규칙화시키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또 상대시제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서법, 상, 양태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다 이해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학습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단계별로 최소화시켜 제시하도록 한다.

관형사형 어미를 교육할 때 먼저 기존 한국어 교재와 같이 ‘-(으)ㄴ, -는, -(으)ㄹ’을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제시하여 기본적인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과 의미를 익히게 한다.

(3) ㄱ. 가 : 어디에서 산 빵이에요?

나 : 학교 앞 빵집에서 산 빵이에요.

ㄴ. 가 : 공원에 누가 있습니까?

나 :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ㄷ. 가 : 집에 갈 사람은 누구예요?  
 나 : 집에 갈 사람은 지애 씨예요.

다음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에 익숙해지면 관형절이 절대시제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시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에 시간 부사가 나타나면 관형절은 절대시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sup>4)</sup> 따라서 시간 부사가 나타난 관형절을 통해서 절대시제로 쓰인 관형절을 연습시키도록 한다. 앞에서 익힌 관형사형 어미를 그대로 이미 일어난 일에는 ‘-(으)ㄴ’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는’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으)ㄹ’을 사용한다.

- (4) ㄱ. 제가 어제 먹은 음식은 맛있었어요.  
 ㄴ. 제가 지금 보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어요.  
 ㄷ. 저는 내일 입을 옷을 사고 싶어요.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상대시제로 해석되는 관형절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이 모문의 시제는 과거이지만 관형절의 시제는 현재로 쓰인 경우이다.

- (5) ㄱ. 어제 간 공원에는 가족들과 놀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ㄴ.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

(5)의 예문은 모문의 시제는 과거이지만 관형절에는 현재가 쓰였다. 특

4) 한동완(1991:155)에서는 관형절이 절대 시제로 해석되는 경우는 관형절과 모문의 발화시 기준의 시간 부사가 나타나거나 관형절에 ‘-더-’가 통합될 경우라고 하였다.

히 (5-ㄱ)과 같이 한 문장 안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이 함께 쓰였을 때 학습자들에게 가장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특히 모문의 시제와 다른 관형사형 어미 ‘-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렵다. 학습자들은 과거의 상황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현재의 상황에는 ‘-는’, 미래의 상황에는 ‘-(으)ㄹ’을 사용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는 화자가 관형절의 상황을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담화공간을 관형절이 일어난 공간으로 옮겨서 표현한 것이다.<sup>5)</sup> (5)의 예문은 화자가 관형절이 일어난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관형절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형절 상황에서는 현재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때 관형절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인지 현재의 사건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 과거의 상황이라면 과거에 사건이 종결이 되었는지 종결이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관형절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고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이미 과거의 일이 되므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고 과거의 사건이 화자의 눈 앞에서 전개되고 있다면 과거의 일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시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뿐만 아니라 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라는 시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종결이라는 상의 의미도 나타내고, ‘-는’은 현재라는 시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진행성 또는 과정성이라는 상의 의미도 나타낸다. 또한 관형절이 절대시제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시제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말할이가 과거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할 경우 담화 공간을 관형절이나 선행절이 실행되던 과거 상황으로 옮겨 표현하는 방식을 담화 공간 이동이라고 한다. 황병순(2005) 참조.

## 2) 부정시제

기존 오류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不定)시제 중에서도 ‘-는’의 쓰임을 알지 못해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up>6)</sup>

(6) ㄱ. 밤에 술을 조금도 못한(못하는) 나와 시아버지가 술을 마셨다.

위의 예 (6)는 사람의 성질이나 습관을 나타내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인식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의 기능 외에도 불변의 진리나 사람, 사물의 일반적인 성질, 습관 또는 현재의 상태나 느낌들을 표현하는 부정시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시제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 장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관형사형 어미 교육에서는 이런 부정시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의 부정시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희자이종희(2001)에서는 ‘-는’은 현재시제의 의미 이외에 구체적인 시간이 아닌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태 그 자체만을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제열(2003)에서는 ‘-는’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7) ‘-는’의 기능

- ㄱ.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기능
- ㄴ. 현재의 상태나 느낌을 나타내는 기능
- ㄷ. 현재에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
- ㄹ. 사물의 속성이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
- ㅁ.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

---

6) 이진경(2006:58) 참조.

- ㅂ. 일반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
- ㅅ. 계획된 미래의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

이희자이종희(2001)과 김제열(2003)에서 설명한 ‘-는’의 기능 중에서 부정시제를 크게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 부정시제로서의 ‘-는’의 기능

시제	기능	세부 기능	예문
부정 시제	사람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	직업 취미 습관	·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u>선생님</u> 입니다. · 취미로 피아노를 <u>배우는 사람</u> 이 많습니다. · 요즘 늦잠 <u>자는 버릇</u> 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	속담 진리 규범 사실	· <u>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u> . · <u>자전하는 지구</u>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 담배꽂초를 <u>버리는 사람</u> 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규칙적인 생활을 <u>하는 사람</u> 은 건강합니다.
	사람·사물의 성격이나 속성	성격 속성	· 저는 화를 잘 <u>내는 성격</u> 입니다. · 술을 못 <u>마시는 나</u> 는 콜라를 마셨습니다.
	계획된 미래	계획	· 다음 주 <u>쉬는 날</u> 에 여행을 갈 거예요.

먼저 부정시제의 ‘-는’을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을 다시 세부기능으로 나누어 보았다. 사람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은 세부적으로 직업, 취미, 습관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이나 취미 또는 습관은 반복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반복이라는 개념을 먼저 인지시킨 다음 반복과 관련된 단어(직업, 취미, 습관)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은 세부적으로 속담, 진리, 규범, 사실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변이라는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먼저 인지시킨 다음 속담, 진리, 규범, 사실과 같은 세부 기능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사람사물의 성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기능은 사람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특징은 없지만 습관은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성격이나 속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미래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화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진 것을 말한다.

[표 3]에서 제시한 기능만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정시제 ‘-는’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는 없겠지만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혼란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 3) 머리명사 제약

한국어의 관형절은 구성성분에 따라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로 나눌 수 있는데 동격 관형절은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관형절이고 관계 관형절은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관형절이다. 이러한 관형절의 주된 기능은 뒤에 오는 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것인데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부분을 머리명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계 관형절은 모든 체언과 다 결합할 수 있지만 동격 관형절은 그렇지 않다. 동격 관형절은 모든 명사와 자유로이 결합할 수 없고 특수 명사와만 결합하는데 결합할 수 있는 머리명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남기심 · 고영근(1993)

- ㉠. 긴 관형절 + 소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보도, 정보, 독촉, 명령, 고백  
.....
- ㉡. 짧은 관형절 + 사건, 기억, 경험, 용기, 줄, 수 .....
- ㉢.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 + 사실, 약점, 욕심, 결심, 목적 .....

(9) 서정수(1996)

- ㉠. 보통명사 : 사실, 점, 일, 사건, 불상사, 까닭, 죄, 경험, 기적
- ㉡. 의존명사 : 것, 바, 적, 때문, 데, 줄, 수, 법, 리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결합하는 머리명사를 구분하여<sup>7)</sup> 제시한 반면 서정수(1996)에서는 관형절 뒤에 오는 머리명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오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동격 관형절에서 하나의 관형사형 어미만을 취하는 머리명사 제약 환경에서도 오류를 많이 범하였는데<sup>8)</sup> 관형사형 어미와 특수 머리명사들을 묶어서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교육하면 관형사형 어미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미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머리명사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특수 머리명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제시한 머리명사들은 남기심·고영근(1993)과 서정수(1996)에서 제시한 머리명사들을 기초로 하여 현재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에 제시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sup>9)</sup>

7) 긴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어서 이루어진 관형절을 말하고 짧은 관형절은 서술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짧은 관형절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영근·남기심(1993) 참조.  
 8) 이은기(2005), 이진경(2006)  
 9) 경희대「한국어」, 고려대「한국어」, 서울대「한국어」, 연세대「한국어」, 이화여대「말이 트이는 한국어」, 한국외대「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양「한양 한국어」, 국립국어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임호빈·홍경표·장숙인「외국인을

[표 4]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머리명사

관형사형 어미	머리명사
-은	-은 덕분에, -은 적이 있다/없다, -은 후에, -은 채로, -은 결과, -은 다음에, -은 지
-는	-는 동안, -는 수가 있다/없다, -는 법이다, -는 길이다, -는 편이다, -는 바람에, -는 중이다, -는 통에, -는 대로, -
-을	-을 뿐이다, -을 필요가 있다/없다, -을 겸 -을 겸 해서, -을 지경이다,

특정 관형사형 어미와 특정 머리명사의 결합은 대부분 한국어 교재 초급2부터 등장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초급1 후반에서 처음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학습하고 나서 하나의 문법처럼 특정 관형사형 어미와 특정 머리명사의 결합을 학습하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때 먼저 뒤에 오는 머리명사를 보고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머리명사에 의지해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복잡한 상대시제 개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

---

위한 한국어문법」

형사형 어미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의 일차적인 원인을 한국어 교재로 보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 교재들을 분석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체계 및 제시 순서 그리고 제시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재 분석 결과와 기존 오류 연구를 토대로 관형사형 어미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상대시제 교육 부족, 부정시제 교육 부족, 머리명사 제약 교육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시제 교육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어 관형절은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해석되는데 상대시제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미를 과거, 현재, 미래의 절대시제로 해석하여 모문의 시제와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상대시제, 부정시제, 머리명사 제약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만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상대시제와 부정시제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인식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관형사형 어미를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관형사형 어미, 절대시제, 상대시제, 부정시제, 머리명사 제약

<참고문헌>

- 강현화·조민정(2001), 「스페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미 조사 및 시상, 사동 범주의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미옥(2002), 「학습 단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통계적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제열(2003), 「한국어교육에서 시간 표현 요소의 문법적 기술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호정(2006),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 관형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 남기심(1972), 「현대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국어국문학회.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지연(2002), 「오류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 일본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동휘(1978), 「국어 관형절 시제」, 『한글』통권 162, 한글학회.
- 이익섭·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진경(2006),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기(2005),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절 시제 교수 방안 연구 -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상(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 이흥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국어연구』 98.

- 이희자·이중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호빈·홍경표·장숙인(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연세대학교출판부.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탐출판사.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한동완(1991),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병순(2005), 「상대시제의 문제점과 시제 실현 원리」, 『국문학』 89, 한국어문학회.
- 허용(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_\_\_\_\_ (1999), 『통어론』, 샘문화사.

<한국어 교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0), 『한국어 초급 I, II , 중급 I, II , 고급 I,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2),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어 문화 연수부(1997),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한양대국제어학원(2007). 『한양한국어』, 한양대학교 출판부.

[Abstracts]

A study of teaching method of  
Adnominal Ending Forms for Korean learners

Lee Sangs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rect the study method of Adnominal Ending Forms for Korean learners.

This paper showed the Korean learner's difficulty for Adnominal Ending Forms as caused by Korean textbooks and analyze these forms.

Then this paper looked for the problems of study Adnominal Ending Forms through analysis of textbooks and learners' error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ree main problems : relative tense, indefinite tense and head noun . Among them, we point o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lack of relative tense study.

Korean adnominal clause is interpreted as absolute tense and relative tense, due to lack of study for relative tense, Korean learner showed a tendency to agreed to tense of the matrix sentence by Adnominal Ending Forms is understood as absolute tense of past, present and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study direction of Adnominal Ending Forms about relative tense, indefinite tense and restriction of head noun.

【Key words】 : Korean education, Adnominal Ending Forms, absolute tense, relative tense, indefinite tense, restriction of head noun.

·이상숙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전자우편 : reduck2@empal.com

이 논문은 2010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3월 2일에 심사완료되어 3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